

#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본, '홍콩'



홍콩은 복잡하고 다층적이며 고도의 기능성을 갖춘 하나의 생태계입니다. 비즈니스, 기술 및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장 주목을 끌며 활동하는 이들을 만나보고, 그들의 무대인 이 도시의 매력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자연환경은 많은 이들이 공통으로 언급했지만, 어떤 답변은 독자 여러분께 조금 놀랍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호텔 총지배인은 열렬한 테니스 마니아였고, 갤러리 관장님은 즐겨 이용하는 페리 항로를 소개했습니다.  
[brandhk.gov.hk](http://brandhk.gov.hk)



# 아시아 최고의 도시, 새로운 다각화를 꿈꾸다.

홍콩은 항상 아시아에서 존재감을 키우고자 하는 사업체에 독보적인 활동 무대가 되어주었습니다. 지난 십 년간도 전과 다를 바 없었죠. 홍콩의 경제를 떠받치는 네 개의 기둥과도 같은 주요 산업(1~4페이지 참조)은 기술을 급속히 도입하고 개혁을 이행하며 지금도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새롭게 떠오르는 크리에이티브 부문(5~8페이지)은 전통적인 강점과 잠재 고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회의 범위를 스스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 1

## 금융 서비스

홍콩은 무엇보다도 국제 금융의 중심지입니다. 인구 약 750만 명의 약동하는 이 도시는 막대한 투자 자본과 상위권을 고수하는 세계적인 주식거래소를 보유한 은행업의 거물입니다. 이렇게 풍부한 역사를 지닌 금융업에 첨단 기술력이 더해지면서 핀테크 업종이 성장하기 좋은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금융이나 보험 업종 스타트업 기업은 규제 개혁 면에서도 유리하고, 전 세계에서 인재를 고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어느 CEO의 말을 빌리면, 홍콩은 "디지털 금융업의 진정한 수도"라고 할 정도입니다.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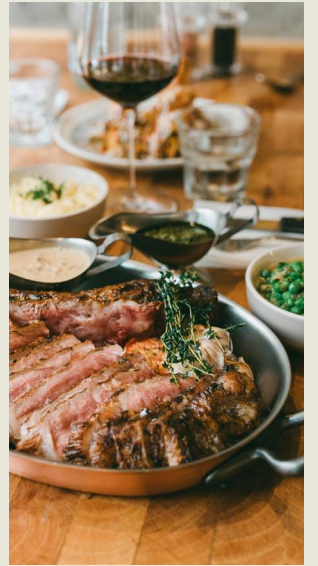
## 무역 및 물류

홍콩은 중계 무역의 중심지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도시입니다. 지금까지도 수출입항으로서의 기풍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물이 모두 끊임없이 움직이는 이 도시는 세계 곳곳으로 물품을 수송하는 일에 능숙한 곳입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의 붐비는 공항으로 화물이 드나들고, 컨테이너 항구는 밤새 줄 모르고 트럭을 들고 내보냅니다. 심지어 화물을 실은 배 자체마저 매물이 됩니다. 홍콩은 근방에서 고급 요트를 사고파는 이들이 찾는 기항지입니다. 지리적인 요충지라는 점도 여전히 큰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절반은 사는 곳에서 홍콩까지 비행기로 5시간 안에 올 수 있습니다.

# 3

## 관광

홍콩의 수많은 숙박업 전문 기업은 해외 관광객의 무사 귀환을 기다리면서 홍콩 주민과 회사를 잘 보살피는 데 집중했습니다. 무수히 많은 세계적인 셰프와 레스토랑 업주가 홍콩에서 대량의 음식을 내놓으며 연일 화제를 모으고, 현지 미식가들은 타협을 모르는 간간한 입맛과 참신한 콘셉트에 대한 갈망으로 유명합니다. 홍콩은 항상 5성급 서비스를 전종 분야로 내세워 왔죠. 대규모 호텔업계에서는 앞으로 몇 년간 새 투숙객과 외식업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다양한 계획을 마련해 놓고, 당장 선보여도 손색이 없는 자태로 단장하고 있습니다.



# 4

## 비즈니스 및 전문 서비스

홍콩 사람이 전부 금융업에 종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 회계사, 엔지니어와 건축가도 많죠. 홍콩의 전문 서비스는 고도의 전문성으로 아시아에서 특히 돋보이며, 수많은 해외 기업이 중국 본토에 투자하거나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홍콩의 믿음직한 법률 체계에 의지합니다. 또한 학생들은 세계적으로 높은 순위를 자랑하는 대학교 진학을 위해 홍콩을 찾습니다. 홍콩은 교육에 적극 투자하는 도시이며, 자연환경이 훌륭해 교실 밖 세상에서도 배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5

## 과학 및 기술

홍콩은 예전부터 과학과 기술에 강했습니다. 숨은 보석 같은 연구소가 많지만 단지 은행업과 금융의 화려한 불빛에 조금 가려지는 경향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 업종이 밀접한 관련을 맺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생명공학 기업이 주식 시장에 공개 상장하여 연구 자금을 충당하기도 하고, 기업이 측에서 학계와 협력하여 연구소에서 탄생한 발명품을 상품화할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죠. 제조와 하드웨어는 항상 홍콩이 잘하는 일이었고, 요즘 새롭게 떠오르는 성장 부문으로는 로봇 공학이 대세입니다.

# 6

## 디자인

홍콩의 신인 디자이너들이 주변 지역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숙박시설 인테리어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훨씬 넓은 범위에서 전문성을 뽐내고 있죠. 홍콩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워크플레이스 디자인 기업이 있습니다. 이 회사 크리에이티브 팀원들은 서로 협력하여 안전하고 깨끗하며 영감을 자극하는 오피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누릴 수 있는 즐길 거리도 많습니다. 외부 환경이 잘 관리되어 있어 잠시 홍콩 시내를 돌아보는 것만으로 자연스럽게 영감의 원천을 찾을 수 있고, 이 도시 크리에이티브 인재들은 이런 방식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 7

## 패션 및 텍스타일

홍콩의 부를 축적한 대부분의 근원은 텍스타일 업계(실처럼 긴 비즈니스 사연도 있지만)입니다. 의류 사업이란 이 도시에 한뼘 한뼘 바느질한 듯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요소입니다. 원자재 공급 및 제조에 주력하는 국제적인 브랜드 외에, 현지 출신 크리에이티브 인재들이 자체적으로 브랜드를 개발하고 있으며 패션을 전공한 학생들이 졸업 후 기존 상공 기업의 원조를 받아 활동하다 세계적인 표 무대에 디자인을 선보이기도 합니다. 젊은 세대가 클래식한 레이블의 지휘를 맡는가 하면, 새로운 인재가 출현해 명품 브랜드에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패션의 진리는 있습니다. 홍콩에서는 언제나 본인의 지위를 고려해 옷차림에 신경 쓸 가치가 있습니다.



# 8

## 예술 및 문화

최근 홍콩은 여러 새로운 시도를 통해 국제적인 미술 시장으로 쌓은 명성을 한층 더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시내 곳곳에서 아티스트를 위한 다양한 공간과 크리에이티브 집단이 나타나고 있으며, 카오룽에서 곧 개관을 앞둔 세계적인 수준의 현대미술 및 디자인 미술관은 미술 애호가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죠.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는 큐레이터와 업계 전문가가 홍콩을 거점으로 삼고 커리어를 쌓으면서 홍콩의 문화를 본격적으로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건물이 가득한 도시이지만, 오래된 문화유산을 감상하는 붐이 일고 있으며, 전통적인 유람선이 진정한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 1 핀테크는 승리한다

금융 서비스

성장 중인 홍콩의 핀테크 업계는 다른 지역보다 확실히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명성 높은 금융 기관과 진정한 기업가 정신의 조합을 통한 특별한 시너지 효과 덕분에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소개해보겠습니다.



**트러스트 블루**  
Mox의 은행 카드는 특별히 제작한 팬톤 색상, 일명 "트러스트 블루" 색으로 제작했습니다. 홍콩의 네온 불빛과 Mox의 모회사인 Standard Chartered를 대표하는 기업 색상을 오마주한 색이죠.



## 은행은 옛 건물, 기술은 새롭게 Mox

Standard Chartered는 홍콩에서 은행업의 왕좌와 다름없습니다. 이 은행에서 발급한 홍콩 지폐가 여전히 시중에 유통되고 있고, 이제는 스타트업 창업에도 진출했습니다. Mox는 지난 2020년 9월에 탄생하며 최근 12개월 내 출범한 가상 은행의 대열에 여덟 번째로 합류했습니다. Mox의 CEO Deniz Güven 씨(사진 속 인물)는 "저희는 Standard Chartered의 향후 운영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Güven 대표는 터키 출신의 전직 농구 선수이자 지금은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홍콩 금융관리국에서 전면 개혁을 실시한 이후 홍콩에는 신생, 인터넷 전용 대출 기관이 급증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근무하다 Mox 설립을 위해 전근한 Güven 대표는 "홍콩이 아시아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디지털 금융업의 중심지가 될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결제 시스템 Octopus

Octopus는 1997년 대중교통수단 요금 결제 시스템으로 시작하여,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 및 여타 소매점으로 사업 범위를 확장해 왔습니다. CEO Angus Lee 씨(사진 속 인물)는 "Octopus로 홍콩 밖으로 진출하는 것이 저희 회사의 오랜 꿈이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홍콩을 찾은 여행객이 Octopus를 이용해 중국 본토의 지하철망 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았으며, 아시아 여러 지역의 스마트카드 교통 시스템과도 연계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카드 찍고 이동**  
홍콩에서는 매일 1,500만 건 안팎의 Octopus 거래(카드, 스마트폰 방식 통합)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QR 코드 스캔과 비교해 빠르고 편리한 "비접촉식 결제(Tap and go)" 기술을 선호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지난 2020년 7월에 시행된 새로운 이니셔티브 덕분에 시내에 마지막 남은, 현금 결제를 고집하는 얼마 안 되는 결제 지점(주요 택시와 전통시장)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개들의 시대 OneDegree

보험 스타트업 기업인 OneDegree는 관탕구에 있는 Fun Tower라는 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출입을 기꺼이 환영하는 건물이죠. 이전에 관탕구는 산업단지였지만 지금은 대안적인 상업지구로 변신하여 특히 보험업체가 많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입지를 다져온 Axa와 AIA는 물론 OneDegree와 같은 신생 온라인 전용 보험업체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곳입니다. CEO 겸 공동 창업자인 Alvin Kwock(사진 속 인물) 씨는 전직 은행원으로서 전자 상거래와 같은 최신 라이프스타일 동향을 살피는 예리한 감각의 소유자입니다. 원치 않는 물품을 주문했을 때 반품 배송비를 보험 적용 범위에 포함한 상품이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지난 2020년 4월에 출시한 반려동물 보험도 성장 중인 부문입니다. Kwock 대표가 골든레트리버 QQ와 놀아주며 "홍콩, 대만과 일본에는 유치원생, 초등학생보다 개와 고양이 수가 더 많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OneDegree는 타이베이에도 지사를 열었으며(타이베이 사무실에는 고양이 집사인 직원이 있습니다), 중국 본토와 싱가포르 및 태국으로 사업 확장을 추진 중이기도 합니다.



**장기자랑 오디오션**  
OneDegree 직원 중에는 미국과 호주처럼 멀리서 온 이들도 있습니다. Alvin Kwock 대표는 "그게 바로 홍콩의 강점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 세계 곳곳의 핀테크 인재를 모아 아무 기반도 없던 상태로 창업에 성공했습니다.



## 나의 홍콩 Lawrence Chu, Oriente 공동 창업주

Oriente는 중소기업에서 고객이 은행 계좌 없이도 신용 대출을 제공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공동 창업자인 Lawrence Chu 씨(사진 속 인물)는 홍콩 본사에서 근무하며 현대미술 작품 수집가로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Chu 대표는 아내 Natalie 씨와 함께 소장하고 있던 작품을 몇 점 매각하여 몇 가지 후원금 제도에 자금을 대고 아티스트 레지던시(Artist Residency) 프로그램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소더비(Sotheby) 경매가 열린 날 아침에 만난 Chu씨는 "예술 활동에 참여할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어요."라고 전했습니다. 올해 40세인 Chu 대표는 런던에 살던 시절 작품 수집을 시작했으며, 지난 2005년 홍콩에 귀국한 뒤로도 수집을 계속해 왔습니다. 자택에 있는 갤러리는 대부분 젊은 작가의 작품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홍콩의 유명 작가 Firenze Lai, Stephen Wong의 작품은 물론 Chris Huen의 초기작도 있습니다(그 옆에는 더 많이 어린 작가들의 작품도 나란히 놓였습니다. Chu 부부의 네 자녀가 그린 작품이죠).

# 적재 구역

오랫동안 중계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해온 홍콩은 지리적인 조건 면에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항구로서도, 항공 허브는 물론 아시아 대륙을 가로질러 육로로 이송되는 물품의 종착지로도 기능할 수 있는 곳이죠. 인력과 물품의 디지털 이동을 주도하기에도 적절한 위치입니다. 이 분야를 대표하는 이들을 만나보았습니다.



## 비행기가 있는 풍경 홍콩 국제공항

홍콩 국제공항(HKIA)에 준비한 크레인 수를 보면,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항공 화물의 중심지인 이곳은 더욱 바빠질 앞날을 대비하느라 여념이 없어 보입니다. 앞으로 몇 년간 완료를 앞둔 프로젝트가 몇 건이나 진행 중입니다. 기존의 Central Asia Hub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프로젝트는 물론, 전자상거래 업계의 거물인 알리바바(Alibaba)에서 후원하는 신축 물류센터도 준공을 앞둔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홍콩 공항당국 상업 부문 총괄 책임자(executive director)인 Cissy Chan 씨는 2024년에 선보일 새로운 3방향 활주로 시스템은 "용량 면에서 실로 비약적인 약진"이 될 것이라 자부합니다. 팬데믹 위기 상황 속에서도 화물 물량은 적정 수준을 탄탄하게 유지했습니다. 캐세이퍼시픽(Cathay Pacific)과 같은 항공사에서도 세계 각지로 필수품을 실어 나르며 최근 화물 항공편이 늘어난 데 일조했습니다. 홍콩의 항공 교통 중심지인 이곳은 신선 식품과 의약품 운송 사업 면에도 투자를 늘릴 계획입니다. 전자상거래처럼 장기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부문이죠. Chan 씨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은 홍콩에서 비행기로 다섯 시간 거리에 산다고 보면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쿨 러닝**  
홍콩 국제공항은 국제항공운송협회에서 보온/보랭 제품 및 농산물 취급 방식의 탁월한 효과를 여러 차례 인정받았습니다. 화물 에이프런에는 새로 들여온 냉장 돌리(캐러밴형 냉장차)가 여럿 늘어서서 고가의 의약품과 기타 다양한 부패성 화물을 싣고 비행기와 터미널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 나의 홍콩 Mike Simpson, Simpson Marine

Mike Simpson 씨는 원래 영국 출신입니다. 직접 만든 38피트 길이의 요트를 타고 홍콩에 처음 상륙했습니다. 전직 군인 겸 모험가였던 Simpson 씨는 그로부터 35년도 더 지난 지금, 여전히 비슷한 모습으로 인터뷰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람마섬의 자택에서 애버딘의 회사까지 1970년대에 제작한 데이크루저 Windy 22를 직접 운전해 다닌다고 합니다. 이쪽 부두부터 저쪽 부두까지 통근 시간은 20분이 걸립니다. Simpson 씨는 "날씨가 좋을 때는 그렇고요. 태풍이 올 것 같은 날은 좀 더 오래 걸리죠."라고 말했습니다.

Simpson 씨의 회사는 아시아에서 손꼽는 규모의 요트 매매 중개업체입니다. Beneteau나 Sanlorenzo와 같은 유럽산 요트 브랜드를 취급하며, 주변 여러 곳에 사무소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76세가 된 Simpson 씨는 최근 자유무역지역으로 선포된 하이난섬에서 자신의 회사 Sanya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 지켜보며 설레는 표정입니다. Simpson 씨는 "중국 시장 개발에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라고 말했습니다.



**피난항**  
Simpson 씨는 새로 들인 요트에 Domino 2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1984년, 홍콩에 처음 정착했던 배를 기리는 이름입니다. 그는 "홍콩은 가장 큰 시장이기도 하고, 요트 항해의 전통이 가장 오래된 곳이기도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기항지 바닷가 다이닝 명소

홍콩에서 가장 특별한 신생 레스토랑은 누구나 짐작할 만한 곳이 아닌, 의외의 위치에 있습니다. 바로 칭이에 있는 어느 창고 안입니다. 지난 10월에 문을 연 The Rambler는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항구 중 하나에 가득 늘어난 크레인 틈에서 광동식 클래식 인기 메뉴, 건강식 샐러드와 플랫 화이트 커피 등을 대접하는 곳입니다. A work of Substance에서 설계한 이 멋진 카페테리아는 1,000명 안팎의 트럭 운전자, 지게차 기사를 비롯해 Goodman Interlink의 여러 직원이 주로 이용합니다. 이 창고 건물은 호주의 부동산 개발업체인 Goodman이 홍콩에 소유한 11개 건물 중 하나입니다. 다른 두 곳을 현재 개발 중이며, 튜먼구에 있는 Goodman Wetlink의 경우 해저 터널을 신축하여 공항과 직접 맞닿은 통로를 통해 이어지게 될 예정입니다.



홍콩은 사실상 미식가가 반길 만한 맛집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최고의 레스토랑 및 호텔 셰프도 까다로운 입맛을 지닌 이 도시의 외식 손님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캐주얼 다이닝 또한 그에 못지않게 흥미롭습니다. 홍콩에는 '조리사가 너무 많아서 곤란하다'는 명제란 성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도시입니다.

### 팀워크의 묘미 BaseHall

지하에 위치한 푸드홀이란 아시아에서는 점심 식사 명소로 흔히 접할 수 있는 형태지만, BaseHall은 이 흔한 개념에 수준 높은 요리를 도입해 새롭게 재해석한 곳입니다. 맛있고 새로운 이 푸드홀은 중앙 상업 지구 내에 위치한 Jardine House 맨 아래에 자리를 잡고 홍콩에서 현재 가장 이목을 끄는 독립 요식업자를 한자리에 모이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호의 Treehouse에서는 베이랩(veggie wrap)을 센터럴에 소개했고, Roti Tori의 경우 성완에 있는 야키토리 전문점 Yardbird에서 고안한 로티스리 치킨 콘셉트를 테마로 잡았습니다. 세계 각지를 아우르는 식품 판매대 중에는 Moyo Sik과 같이 한국 음식을 주로 다루는 곳부터 Westside Taqueria의 타코, 멕시코 출신 셰프 Esdras Ochoa 등 다양한 장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뉴욕 출신인 Will Fang은 Cookie Department를 맡아 달콤함을 담당하고 있고, 이 모든 코스를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Mandarin Oriental 소속 직원이 내주는 커피와 칵테일 바가 있어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Hong Kong Land(HKL) 선임 자산 관리사(AM) 겸 BaseHall을 고안해낸 장본인인 Tom Andrews 씨는 "저희는 좋은 입지에서 창의적인 콘셉트를 시도해보고자 하는 식음료 업계 종사자에게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BaseHall 팀원 소개

- Nick Chan**  
Roti Tori  
공동 창업주
- Alex Huels**  
Mandarin Oriental & BaseHall Bar  
식음료(F&B) 사업부 총책
- Lindsay Jang**  
Roti Tori  
공동 창업주
- Matt Abergel**  
Roti Tori  
공동 창업주
- Tom Andrews**  
HKL, 선임 자산 관리사
- Pamela Yeung**  
HKL 자산 관리 담당자
- Melody Ho**  
HKL 어시스턴트 재산 분석가
- Wil Fang**  
Cookie DPT 소유주
- Francesco Lee**  
Moyo Sik 소유주
- Jon Chan**  
Westside Taqueria  
공동 창업주
- Alice Stevenson**  
HKL 어시스턴트 자산 관리사
- Brian Woo**  
Co Thanh 소유주
- Christian Mongendre**  
Treehouse 소유주



### 나의 홍콩 Toby Smith, Swire Hotels 부회장

Swire Hotels는 지난 2008년에 문을 연 호텔 체인으로 홍콩에 두 개 지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애드미럴티에 있는 고품격 테마의 Upper House이고, 다른 하나는 좀 더 규모가 크고 느긋한 분위기의 타이쿱의 East입니다. 1991년부터 Swire라는 거대기업에 입사해 근무해온 Toby Smith 부회장은 "소울풀한 호텔을 꾸며보고 싶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Smith 부회장은 영국인으로, 처음 시드니에 발령을 받았을 때 취미로 테니스를 치기 시작한 뒤로 세계 각지에서 근무한 뒤 홍콩에 오기까지 라켓을 놓지 않았습니다. Smith 부회장은 요즘 일본, 한국과 호주에 호텔 지점을 지을 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는 "뛰어난 브랜드를 만들었으니 더 많은 사람에게 소개하고 싶거든요."라고 말했습니다.



### 세상을 엿보는 창 주요 F&B 비즈니스 세 곳

홍콩의 숙박업 사업가란 자신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만큼이나 경험 많은 여행가입니다. 해외 식문화와 소개하는 이 세 곳에서 아시아의 세계 도시인 이곳이 성공을 보장하는 비법인 이유가 무엇인지 맛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 아침 식사: Baked, 성완**  
6대째 베이킹을 가업으로 삼고 있는 남아프리카 출신 베이커 Zahir Mohamed가 50년 된 사위도우 스타터를 단지에 담아와 2018년에 문을 연 곳이 Baked입니다.
- 커피: Fineprint, 타이항**  
호주 출신 베테랑 바리스타인 Scottie Callaghan이 공동 창업주로 나선 Fineprint는 홍콩의 부지런한 피트니스 애호가 고객을 위해 아침 일찍 문을 열고, 늦은 시간에는 따뜻한 분위기의 바(bar)로 변신합니다.
- 저녁 식사: Hansik Goo, 센트럴**  
Hansik Goo는 서울에서 밉글스(Mingles)로 명성을 얻은 강민구 셰프가 운영하며 한국식 집밥과 길거리 음식 인기 메뉴가 메인 요리입니다.

### 육류 시장 Feather & Bone

Feather & Bone은 최근 신계 지역(New Territories)까지 활동 범위를 넓히며 홍콩의 '동네 정육점'이라는 지위를 꿰차고 있습니다. 창업주인 Paul Daley 씨는 그의 고향인 영국 정육점을 재현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Daley 씨는 "처음 목표한 건 와인이나 커피 한 잔을 즐길 수 있는 고급 정육점이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사업 범위를 넓혀 델리카트스, 식료품점과 올데이 다이닝(all-day-dining) 레스토랑까지 포함하였습니다. 이외에 태국, 베트남과 중국 본토에도 진출할 기회를 모색 중인 Daley 씨는 "홍콩에서 15호점까지 내고 싶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시궁 지점을 열었고, Sean Dix가 설계한 쿠킹 스튜디오도 준비 중입니다.

**주문 제작**  
운영 책임자인 Mark Chan 씨(사진 속 인물)는 "저희 레스토랑 모든 지점에서 취급하는 시그니처 메뉴로 손님이 직접 정육업자 판매대에서 고기를 고르면, 손님 눈앞에서 조리해 드리는 스테이크가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산물 전문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국소적인 콘셉트를 재구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손님이 생선이나 굴 같은 신선한 재료를 고르면 눈앞에서 조리해주시니까 요리의 유래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잖아요."

# 4

비즈니스 및 전문 서비스

# 날카로운 지성

## 교육 및 연구

**홍콩대학교 해양과학 연구소(Swire Institute of Marine Science, SWIMS)**

홍콩에는 해양 공원이 대여섯 곳은 있지만 과학 연구를 위해 따로 마련한 해양 자연보호구역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홍콩섬 남동쪽 끝에 위치한 돌투성이 노두 지형인 다길라 곶(Cape D'Aguilar)이 바로 이 보호 구역이며, 홍콩대학교 산하 해양과학 연구소(줄여서 Swims)도 이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0년에 문을 연 Swims는 현재 증축 공사 중입니다. 신축 건물은 2021년 초에 공개될 예정인데, 실내와 야외 아쿠아리움, 건식 및 습식 연구소와 다이브 로커(dive locker) 등을 포함하며, 가장 중요한 재료인 충분한 양의 신선하고 수질 좋은 해수를 대량 공급하는 시설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Swims의 Gray A Williams 소장은 "열대 지방에는 이만한 수준의 해양 연구 센터가 무척 드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Williams 소장(사진 속 인물)은 Swims가 처음 개관했을 때부터 이곳에서 근무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1989년에 그가 영국에서 이곳으로 이민을 결심한 동기였습니다. 2003년부터는 소장직을 인계받아 재직 중입니다. 지금은 그가 맡은 팀이 극한의 환경에서 열이 연체동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중입니다. 해수 기온이 오르면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분야죠. Williams 소장은 "이곳은 정말이지 대단히 역동적이고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환경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홍콩은 중국 공해에서 차지하는 해역 면적은 고작 0.03%밖에 되지 않지만, 중국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해양 생물종의 약 25%를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대학원생 중에는 아예 현장에서 숙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 모인 대학원생들이 한 팀 현장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Williams 소장은 "여름철에는 속소가 해외 손님들로 만원을 이루죠."라고 설명했습니다. Swims에 합류하고 30년이 지난 지금, 소장은 이곳을 근방의 여러 연구소나 기관과의 협력을 주도하는 아시아의 허브로 키우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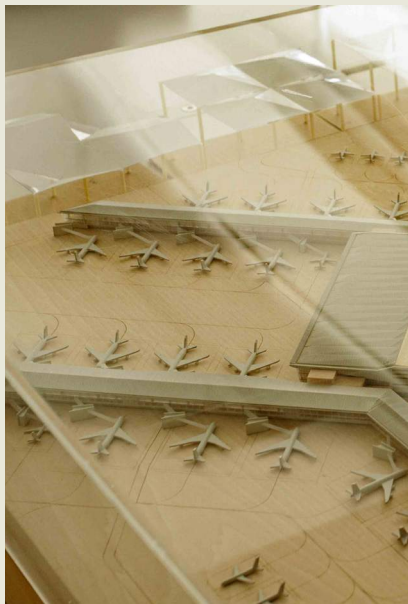


홍콩은 학문 연구부터 법률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각지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가 다수 유입되는 중대한 중심지입니다. 전문성, 경험과 판단력 면에서 귀한 대접을 받는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문가 중 대표적인 인물을 몇 명 만나 그들이 하는 일과 세계적인 연대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 규정집 고쳐 쓰기 세 가지 최신 법 개정

혁신과 법적 전문성이란 자연스럽게 연관관계가 떠오르는 조합은 아니지만, 홍콩의 믿음직한 법률 체계는 시대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 1. ODR: 온라인으로 합의합니다**  
홍콩은 아시아를 선도하는 분쟁 해결의 중심지입니다. 이제 조정 절차가 온라인 형식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Ebram Centre에서 지난 6월 온라인 분쟁 해결(Online Dispute-Resolution, ODR) 플랫폼을 출범하여 국가 간 상업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해외 출장을 나오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가장 조정 또는 중재 심리를 이용하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사법 체계에 대한 접근성은 강화됩니다.
- 2. 새로운 특허 제도: 참신한 아이디어**  
홍콩에서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새로운 특허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전처럼 출원자가 홍콩 외부의 지정된 특허청에 먼저 출원서를 등록하지 않고, 홍콩에 바로 표준 특허를 출원할 수 있게 바뀐 것입니다. 이렇게 바뀐 제도 덕에 발명가가 홍콩에서 자기 발명품을 법적으로 보호받는 과정이 한결 간편해졌으며, 나아가 홍콩을 지적재산 거래의 중심지로 널리 알리게 되었습니다.
- 3. 중국 본토로 가는 관문: 열려라 참깨**  
홍콩은 중국 본토로 가는 관문이라는 독보적인 역할을 하는 곳으로서 항상 외국 기업의 관심 대상이었습니다. 2003년에 중국과 홍콩 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CEPA)을 체결한 이후 중국 본토 시장으로 진출할 기회의 문이 활짝 열린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CEPA 산하 서비스 협약이 개정되면서 두 지역 간 서비스 교역이 한층 더 자유롭게 허용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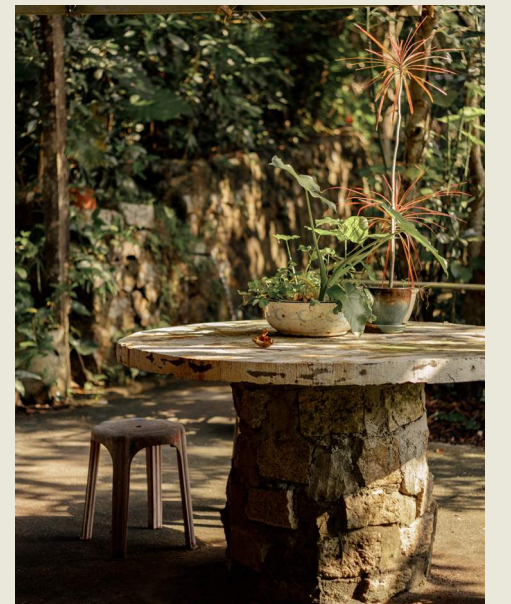


## 건축 Integrated Design Associates

지난 2018년 필리핀 세부 공항에서 제2터미널이 공개되자, 열대 느낌을 살린 목재 구조에 방문객의 찬탄이 끊이지 않았으며 수많은 수상의 영예가 뒤따랐습니다. 이 건물을 설계한 주인공인 홍콩의 건축가 Winston Shu 씨(사진 속 인물)의 입장에서 이 작품이 아시아에서 새로운 공항 디자인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Shu 씨는 "세부 공항 전에는 현지 문화를 건축에 포함한다는 것이 지역 출신 아티스트를 섭외해 예술 작품을 몇 점 넣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렇게 해도 건물 자체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죠."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건축가 Norman Foster 밑에서 일하다 1999년에 공항 디자인 전문 건축 사무소를 설립했습니다. Shu 씨는 "그러다 생각하기 시작하 겁니다. 공항 건물 자체에 지역적인 독특한 특색을 넣어본다면 어떨까, 하고 말이죠."라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 나의 홍콩 Jenny Quinton Ark Eden 창업주

Jenny Quinton 씨는 1989년 티베트로 가던 중 홍콩에 들렀다가 그대로 정착했습니다. 란타우섬 무이워 마을 북쪽의 고즈넉한 계곡에 반한 나머지 이곳을 집으로 삼게 되었다고 합니다. Quinton 씨(사진 속 인물)는 전직 교사로, 14년 전 교직을 그만두고 란타우 숲속의 집에서 자신만의 환경 교육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Ark Eden은 Quinton 씨가 만든 친환경 교육 및 영속농업 센터 겸 숲속 학교입니다. 지난 25년간 34,000그루가 넘는 자생수종을 심어온 Quinton 씨는 "환경 교육을 확대하지 않으면 지구를 구할 수 없을 거예요. 저는 홍콩이 아주 중대한 역할을 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리얼리티 기술

## 인기 명단

### SinoMab Bioscience

홍콩에서는 생명공학 기술이 유망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SinoMab Bioscience가 현지 생명공학 기업으로서는 최초로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했습니다. 전년도에 규정이 개정되어 매출이 전혀 없어도 공개 상장할 수 있게 된 제도상의 이점을 적극 활용한 셈인데, 이로써 새롭게 유입된 자본을 더 많은 연구 개발에 투자하는 데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2001년에 SinoMab을 창업한 Shawn Leung 박사(사진 속 인물, 맨 오른쪽)는 "이거야말로 퍼즐에서 빠진 한 조각과 같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Leung 박사는 현재 홍콩 증권거래소 생명공학 자문단으로 활약하며 새로운 상장 제도에 공개를 신청한 지원자 서류를 검토하는 업무를 돕고 있습니다. 홍콩 사이언스 파크(Science Park)에 입주한 연구소에서 Leung 박사는 "홍콩은 아시아 생명공학을 대표하는 유력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라고 공언했습니다. SinoMab 소속 과학 연구진은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 치료법을 연구 중입니다. 현재 대표 상품은 류머티즘성

관절염 치료제입니다. SM03이라는 신약이 현재 3상 임상시험 중이며, 효능이 입증되면 세계 최초로 류머티즘성 관절염 치료제로서 인정받는 신약이 됩니다. Leung 박사는 "이런 일을 하는 회사는 세상에 오로지 저희뿐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면역질환 치료법 혁신이라는 분야에서 이 회사를 세계적인 선도 기업으로 키우고자 합니다.



과학자란 스포트라이트를 받기지 않는 내향적인 집단일지 모르지만, 홍콩의 탄탄한 상업 기업은 과학 연구소와 팀을 이루어 유용한 발명품을 세상에 내놓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파급력이 큰 이런 프로젝트 중 몇 가지를 선정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질의응답(Q&A)**  
Hugh Chow  
Astri 대표이사(CEO)

홍콩 응용과학 및 기술 연구소(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Astri)는 2020년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원래 정부에서 홍콩을 스마트 시티로 전환하고자 설립한 기관으로, 그와 동시에 인공지능(AI) 및 사이버 보안과 같은 기술 기반 분야에서 홍콩 기업에 유리한 위치를 마련해준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Hugh Chow 씨는 공학 전공자로 지난 2018년에 CEO로 취임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신가요?**  
MTR과 합동으로 철도 혁신 연구소(Joint Railway Innovation Laboratory)를 설립했습니다. MTR은 홍콩을 대표하는 대중교통 시스템이니까, MTR을 더욱 빠르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저희가 보유한 기술력을 본격적으로 응용할 대상으로 가장 적합했죠. 그중 한 프로젝트에서는 센서, 카메라와 감지기를 모두 연결해주는 5G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홍콩 시민이 이런 프로젝트를 실제로 접하게 되는 건 언제쯤일까요?**  
일반 시민은 중국공상은행 모바일 뱅킹 포털, 특히 챗봇을 통해 저희 프로젝트 결과물을 접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챗봇이 어디에나 있지만, 저희 챗봇은 혼합 언어용으로 고안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왜 그렇게 만드셨나요?**  
홍콩에는 혼합 언어가 많거든요. 길거리를 잠깐 걸기만 해도 광둥어를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실제로 영어를 섞어 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존 챗봇의 음성 인식 도구가 제 몫을 다하지 못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 스마트 패키징 Ecoinno

George Chen 씨는 맛있는 커피 한 잔을 마시거나 라면 한 그릇으로 간편하게 식사를 끝내기 위해 지구의 수명을 대가로 치러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Ecoinno라는 회사를 공동 창업하여 운영 중인 Chen 씨는 "사람들은 쓰레기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죠."라고 말했습니다. Ecoinno는 홍콩에 기반을 둔 생분해성 식품 패키징 제조업체로, 일회용 플라스틱의 필요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엄청난 문제를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자문했습니다. '더 나은 방법이 있을까?'"  
방법이 있었죠. 홍콩 사이언스 파크에 소재한 자사 연구소에서 셀룰로스 기반의 친환경 소재를 개발한 것입니다. Ecoinno의 천연 소재, 식물성 섬유인 "GCM(Green Composite Material)"은 플라스틱보다 온도 내성이 우월하며 75일 내로 100% 생분해됩니다. 이 GCM으로 만든 식품 용기와 커피 캡슐도 홍콩 타이포에 있는 생산 시설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Ecoinno는 알리바바(Alibaba)에서 주최한 연간 점프스타터(Jumpstarter) 2020년 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5개 팀 중 하나로, 그 결과 Alibaba Entrepreneurs Fund에서 내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Chen 씨(사진 속 인물)와 팀원들은 현재 이탈리아에서 가장 큰 커피 공급업체, 홍콩의 대표적인 항공사와 손을 잡고 기내식용으로 생분해성 식품 용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Chen 씨는 "과학이 못 이룬 일은 없습니다. 정해진 틀을 벗어나서 생각하는 게 관건이죠."라고 말했습니다.



## 나의 홍콩 Rice

L'hotel Island South를 이용한 투숙객이 이곳의接客 서비스가 '로봇 같았다'고 평한다면, 사실 이것은 칭찬이었을 것입니다. 사람 허리 높이가 크기의 이 로봇은 밥솥 모양을 닮아 Rice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올해 초 호텔 스태프로 합류한 뒤 여담이형으로 설계된 머릿속에 카푸치노와 따뜻한 크루아상을 담아 손님에게 전달하는 접대 서비스를 제공하며 꾸준히 팬을 늘려왔습니다. Rice의 업무는 동트기 전 심야 시간대 룸서비스부터 시작합니다. 사실이 업무를 가장 좋아하는데, 조용한 복도를 빠른 속도로 누비며 빈 승강기를 타고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이 호텔에 사람이 많아 활기찬 시간대보다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손님과 수트케이스, 종종 등장하는 제멋대로 돌아다닐 때면 감도 높은 외장 셀과 360도 시야가 큰 역할을 합니다. 2시간 동안 낮잠을 자면서 재충전을 마친 뒤에는 호텔에 도착하는 손님들에게 다과와 환영 인사를 전하고 가끔 들어오는 기념사진 요청에 응해 포즈를 취합니다. 손님들이 워낙 Rice를 아껴준 나머지 호텔 측에서는 로봇 테마로 여름철 스테이케이션 프로그램까지 마련했다고 합니다.



**배달 로봇**  
Rice Robotics의 창립자 Victor Lee 씨는 호텔부터 병원까지 각종 서비스 업종을 총망라하여 일할 수 있는 자율형 로봇을 여럿 만들고자 합니다.

**혁신의 허브**  
홍콩 사이언스 파크에서는 2020년에 로봇 공학 촉진 센터(Robotics Catalysing Centre)를 열어 로봇 업계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Rice Robotics가 입주한 후, Rice가 일종의 영업 담당자(front of the house)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 정교한 형태

세계적으로 유망한 홍콩의 가능성과 발맞추어 홍콩에 거점을 둔 디자인 기업도 전 세계 고객으로부터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홍콩의 창의력 넘치는 창업주 세 사람을 만나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캘리포니아, 한 사람은 체코 출신이고 마지막 한 명은 뉴욕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는 홍콩 토박이입니다.



## 청결제일주의 M Moser Associates

M Moser Associates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대규모 오피스 디자인 기업입니다. 21개 도시에 1,0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대기업이죠. 미국 캘리포니아주 출신인 Moira Moser 씨(사진 속 인물)가 1981년에 홍콩에서 회사를 세웠을 때만 해도 오피스 디자인은 큐비클 방식이 대세였습니다. 요즘 오피스 웰빙 부문에서 대세로 떠오르는 최신 혁신 요소는 그렇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Moser 사장은 사내에 설치된 고등급 공기 여과 및 정화 시스템을 소개하면서 "여기는 홍콩에서 제일 깨끗한 사무실 중 하나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Moser 사장은 건축학 전공자로서 인테리어 디자이너와 전략가가 공학자, 기술자와 함께 일하는 통합형 접근 방식을 취한다는 점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투자하는 고객이 늘어나면서 공기의 질이 오피스 설계의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Moser 사장은 실제 직장이라는 공간의 미래에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큐비클이 다시 유행하지는 않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직장이라는 공간에서 아직 사라지지 않은 것은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입니다. 아이디어와 혁신을 떠올리려면 사람이 필요하니까요."

**오피스 건물**  
Moira 사장은 보통 해외 여러 지사를 오가며 지내지만, 최근에는 홍콩 완차이 지역에서 회사 운영을 감독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홍콩 시내에서만 다섯 번째로 설립한 지사이며 고객에게 새로운 콘셉트를 소개하기에 앞서 직접 테스트해보는 일종의 연구소와 같은 역할도 하는 곳입니다.



## 전구에 불이 켜지듯 Lasvit

조명 디자인 전문 기업인 Lasvit는 체코 출신인 Leon Jakimic 씨가 1999년 홍콩에 유학생으로 입국해서 세운 회사입니다. 학업을 마친 뒤에도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홍콩에 계속 머무르기로 했고, 그 결과 5대째 내려오는 가문의 유리 제조술을 기반으로 한 컨템포러리 디자인과 첨단 기술력을 합해 회사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Jakimic 사장은 "홍콩에 계속 머무르면서 그때까지 배운 것을 활용하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회사만의 특별 주문 제작 상품인 조명 장치와 글라스 아트 제품은 페닌슐라 호텔이나 K11 Musea 쇼핑몰과 같이 홍콩에서 가장 화려한 곳에서 접할 수 있습니다.



## 나의 홍콩 Nelson Chow, NC Design & Architecture 창업주

사이쿱에는 크고 작은 만과 섬이 많아 수상 스포츠를 즐기기에 적합합니다. 초심자가 패들보드에서 떨어지면서 배우는 동안 좀 더 모험심이 넘치는 경력자는 하이브리드 서프보드와 윈드 서퍼의 일종인 윈드 포일(wind foil)을 타고 빠른 속도로 물살을 가릅니다. 디자이너 Nelson Chow 씨(사진 속 인물)는 2년 전 사이쿱에서 처음 씨카약(sea kayak)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일 년 내내 주말마다 패들링을 즐긴다는 Chow 씨는 "저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걸 워낙 좋아해서요. 정말 다양한 볼거리를 곳곳에서 무수히 많이 발견할 수 있는 데다, 저한테 맞는 속도로 즐길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로 찾는 목적지는 솔트 아일랜드(Salt Island)입니다. 패들로 왕복 약 세 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죠. 올해로 43세가 된 Chow 씨는 회사에서 가장 최근에 추진한 팀빌딩 활동을 위해 이곳에 스튜디오를 차렸습니다. Chow 씨는 뉴욕에서 일하다 2011년에 홍콩으로 돌아와 NC Design & Architecture를 설립했습니다. 이곳에서 설계를 맡은 프로젝트 중에는 바 겸 레스토랑인 Foxglove, 커피숍 Fuel Espresso와 같은 홍콩 도심의 대표적인 명소를 포함합니다. NC Design & Architecture는 다가오는 2021년 창립 10주년을 맞습니다. 그 기념으로 다양한 프로젝트가 공개되는데, 그중에는 중국 본토와 마카오에서 새로 문을 여는 숙박시설 프로젝트도 있고 고향인 홍콩에서 준비한 서커스 테마의 나이트클럽도 있습니다.





# 스타일 교정

홍콩에는 오랫동안 노련한 솜씨의 재단 기술이 축적되어 온 데다 젊은 신진 디자이너를 위한 건실한 지원 시스템도 완비되어 있어 패션 사업이 발전하기 좋은 모든 조건을 다 갖춘 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스타일이라면 일가견이 있는 대중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 빈티지 보물 발견 Vestiaire Collective

Vestiaire Collective는 패션계에서 다소 의외의 트렌드센터입니다. 중고 명품 의류를 온라인 판매하는 사업의 선구자적인 업체죠. 대표이사인 Fanny Moizant 씨는 2009년 파리에서 세운 회사의 활동 범위를 아시아 대륙으로 넓히고자 2017년 홍콩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원격항에 위치한 사무실 겸 창고에서 만난 Moizant 대표(사진 속 인물)는 "홍콩은 아시아 명품 매매의 중심지니까, 그런 생태계 내에 속한다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Vestiaire Collective는 호주에서도 지점을 열었으며, Moizant 대표는 한국과 일본 시장도 둘러볼 계획입니다. Moizant 대표는 "중고 시장에도 신뢰와 영감이라는 원칙을 도입해 기존의 구조를 변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뭔가 쿨한 것을 만들어낸 게 됐더군요. 사람들이 함께하고 싶어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만들어진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 주인이 있었던 명품 Vestiaire Collective에서는 중고 명품을 판매하여 소비자의 절약을 돕고 옷의 수명도 연장합니다.



산책의 묘미 한 번 가을 만한 소매점 세 곳에서 선정한 브랜드 픽

- 여성복: B/major**  
지난 2019년에 남편 Leo Chan과 함께 B/major를 공동 창업한 디자이너 Grace Lai 대표는 "구두 디자인이라는 분야에서 홍콩을 열려 떠돌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저희는 그런 인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보기도 좋고 품질도 뛰어나면서 가격대도 적당한 구두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출발했죠."라고 말했습니다. *The Mills, 추엔완*
- 남성복: ONS**  
ONS의 창립자 Brian Chung 대표는 "홍콩에는 괜찮은 브랜드가 참 많은데 제대로 주목을 받은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Chung 대표는 인터뷰 당시 막 뉴욕에 매장을 연 직후였습니다. 또한 "제 목표는 이렇게 주목받지 못한 인재들을 세계 무대에 세우기 위해 육성하는 겁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Landmark Men, 센트럴*
- 유니섹스: Lane Eight**  
디자이너 Josh Shorroch 씨는 "저는 하루 동안 네 켤레의 신발을 신을 의향도 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형제인 James와 함께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소재를 사용한 다목적 신발을 만들었는데, 사무실에서는 물론 육상 트랙에서 신고 달리기도 좋은 탁월한 기능성이 특징입니다. *St Francis Street, 완차이*



## 나의 홍콩 Christopher Owen, Thirty30 Creative 공동 창업주

Christopher Owen 대표(사진 속 인물)는 지난 2015년 아내와 함께 디자인 스튜디오 Thirty30 Creative를 창업하고 아시아 전역에서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마케팅 캠페인 제작에 주력해 왔습니다. 영국인인 Owen 대표는 Ascot Chang의 Justin Chang 씨와 친구 사이로, 자신의 스타일을 가꾸는 데는 Chang 씨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Ascot Chang은 1950년대에 창립한 홍콩의 정통 맞춤 양장점입니다. 지금은 미국과 중국 본토에도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여름은 덥습니다. Owen 대표는 여름을 나기 위해 꼭 리넨 소재의 바지를 입습니다. 열렬한 크리켓 애호가로서 홍콩에서 활동 중인 현역 팀 12개 중 한 곳의 주장을 맡고 있습니다. Owen 대표는 "몸에 잘 맞는 줄 확실히 아는 수트를 입었을 때 얻는 특유의 자신감이 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Owen 대표는 출근 복장이나 크리켓 선수복을 입지 않을 때는 아직 가족으로 살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가족과 함께 프린스 에드워드 거리의 꽃 시장에서 식물을 사거나 삼슈이포의 골목과 상점을 구경하면서 여가 시간을 보냅니다.

### 마름질 기술 재단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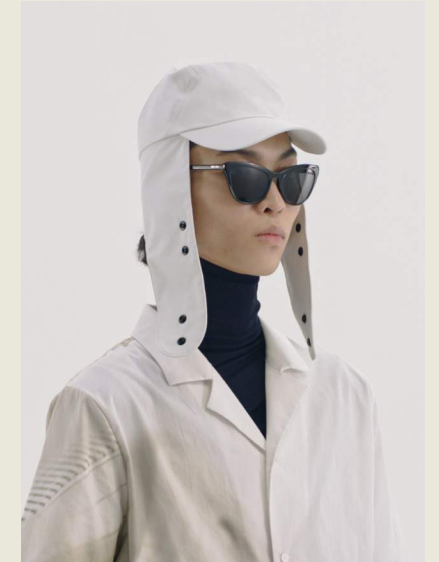
Justin Chang 씨(위)는 Ascot Chang을 가업으로 3대째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점이나 아래의 남성복 전문점에서 맞춤 제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Attire House**  
8 Wyndham Street, Asia Pacific Centre, attire-house.com
- WW Chan & Sons**  
30 Queen's Road Central, Entertainment Building wwchan.com
- The Armoury**  
12 Pedder Street, Pedder Building thearmoury.com



## 지켜볼 가치가 있는 레이블 Ffixxed Studios

패션 디자이너 Fiona Lau 씨와 Kain Picken 씨는 베를린에 살다가 2010년에 홍콩으로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Ffixxed Studios를 세웠습니다. Picken 씨는 "그렇게 문화적인 변화를 겪은 것 자체가 참 많은 영감의 원천이었죠. 홍콩 특유의 아주 강렬한 개성이 저희 브랜드의 전반적인 톤을 잡아주었습니다. 치밀한 밀도나, 옛것과 새로운 것이 서로 맞붙어 있는 특유의 분위기, 즉흥적인 성격 같은 것이 대표적이죠."라고 설명했습니다. Lau 씨는 지난 2012년 홍콩 신진디자이너상(Young Design Talent Award)을 수상하였으며 두 사람은 최근 홍콩 디자인 센터에서 운영하는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을 수료하기도 했습니다. Picken 씨는 "중소기업을 위한 기회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많아요."라고 말했습니다. Ffixxed Studios에서는 정부 지원금 덕분에 6년 연속으로 파리 컬렉션에서 패션쇼를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상하이에 머물고 있는 Picken 씨는 "저희는 물리적으로 몸이 어디에 있든 관계없이 항상 홍콩에 아주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두 사람은 상하이에서 2021 봄/여름 남성복과 여성복 컬렉션을 공개했습니다.



장기자랑 오디션 Ffixxed Studios는 2015년 최초로 진행된 Creative Call-out에서 우승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 연례 경연대회는 2020년에 창립 170주년을 맞이한, 유행을 선도하는 홍콩의 패션 소매업체 Lane Crawford에서 주최하며, 신인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기회의 장입니다.

# 창의력의 허브

홍콩은 그저 고층건물만 즐비한 도시가 아니라, 갤러리도 많고 한때 산업 현장이었지만 지금은 아늑한 아티스트 작업장으로 개조된 건물도 많은 예술적인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중 몇 곳을 둘러보고, 기대를 모으는 신축 시각 문화 전시관 프로젝트인 M+ 큐레이터와도 만나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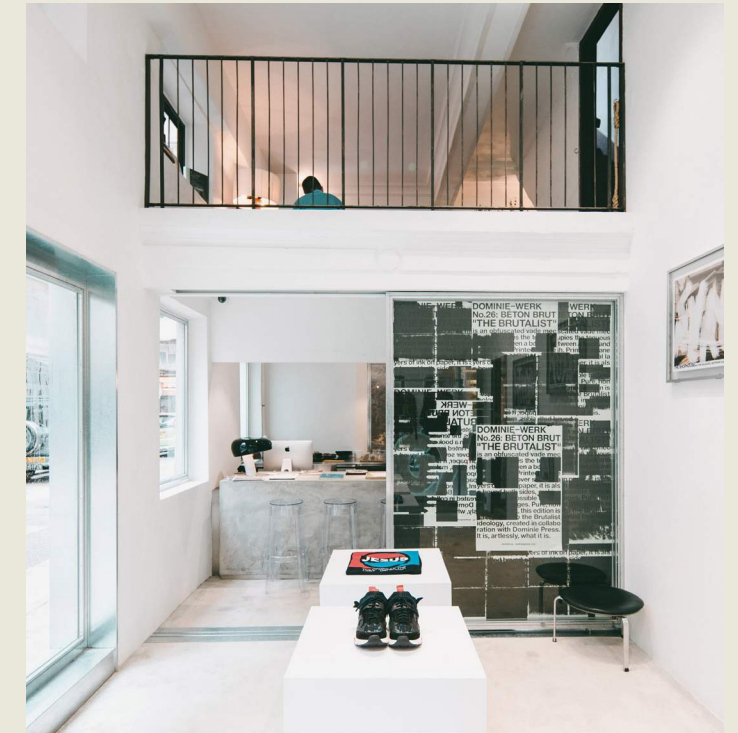


**작업 진행 중(WIP)**  
영국인 아티스트 Damian Boylan 씨(왼쪽), Hart 미술관장 Jeannie Wu 씨(가운데)와 미국인 아티스트 Shane Aspegren 씨(오른쪽)



## 창의적인 전환 Hart Haus

케네디 타운의 Hart Haus는 원래 산업 시설로 쓰인 건물이었지만, 지금은 아티스트 21명이 활동하는 공간입니다. 맨체스터 출신으로 분야와 장르를 가리지 않는 아티스트 Damian Boylan 씨는 항공기 기사로 일하던 경험을 살려 작품을 창작하고, 미국 출신의 Shane Aspegren 씨는 키보드 앞에 앉아 작곡에 몰입합니다. Aspegren 씨는 센트럴 지역에 있는 자매 갤러리인 Hart Hall에서 첫 회를 치른 전시회에 참가한 "하우스 주민(Hausian)" 4인 중 한 명입니다. Hart Haus를 운영하는 비영리 예술 단체의 이사인 Jeannie Wu 씨는 "저희는 주로 문화나 예술이라는 매체 양쪽 모두에서 다양성이라는 요소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출신의 비주얼 아티스트 겸 사운드 아티스트인 Cassie Liu 씨는 지난 2019년 졸업 후 이곳에 합류했습니다. Liu 씨는 "제일 놀라운 건 단연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예요."라고 말했습니다.



## 나의 홍콩 Nadia Ng, Perrotin 미술관장

프랑스 현대미술 갤러리인 Perrotin은 2020년 중반 무렵 빅토리아 하버의 원래 위치에서 정반대편인 카오룽으로 이사했습니다. 갤러리 관장인 Nadia Ng 씨 입장에서는 주소가 바뀌면서 출퇴근할 때 이용하는 교통수단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백 년 된 트램을 타다가 이제는 그보다 더 오래되고 더 고풍스러운 출퇴근 수단인 스타 페리를 이용하게 된 것입니다.

Ng 씨(사진 속 인물)는 "이렇게 오래된 대중교통 수단 중에서도 최고만 골라 경험할 수 있단니 제가 운이 좋았죠. 싱가포르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라고 말했습니다. 원래 싱가포르 출신인 Ng 씨는 대개 완차이 부두에서 10시에 출발하는 페리를 탑니다. 직선거리가 가장 짧은 노선이 가성비도 가장 좋습니다. 편도 약 0.30 유로 정도죠. 다만 항구를 건너가는 데는 몇 분밖에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페리를 좀 더 오래 탔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하는 Ng 씨는 Perrotin에서 제의한 이 자리를 승낙하고 2017년에 홍콩으로 왔습니다.

## 화려한 개관을 앞두고 M+

2021년에는 아시아 예술 시장에 극적인 변화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홍콩에 신개념 시각문화박물관인 M+가 문을 열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정도련 씨는 지난 2013년 뉴욕 현대미술관(MoMA)에서 일하다 홍콩으로 거점을 옮겼습니다. 서울 출생인 정 큐레이터가 "세계적인 시각을 갖춘 박물관을 만들겠다는 것도 저희 취지의 하나입니다. 또 다른 취지는 홍콩에 뿌리를 두고 홍콩에서 영감을 얻는 것이죠."라고 말했습니다.

정 큐레이터를 위시한 팀원들은 17,000m<sup>2</sup>의 전시 공간에 박물관의 영구 소장품을 전시하게 됩니다. M+에서는 지금도 꾸준히 작품을 매입하고 있으며 시각 예술, 동영상, 디자인과 건축 작품 등 제작 연대도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모든 시대를 총망라하여 약 8,000여 점에 달하는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자리는 M+ Sigg 컬렉션이 차지할 전망입니다. 약 1,500점에 달하는 개인 소장품을 기증받은 컬렉션으로, 중국 현대미술사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을 다수 포함합니다.



**멀리 보기**  
M+ 전시관은 스위스 건축설계 사무소인 Herzog & de Meuron에서 레이아웃을 맡아 무척 극적인 공간입니다. M+의 수석 큐레이터 겸 큐레이터 팀 부관장을 맡게 된 정도련 씨는 이곳을 "급진적으로 수평적인(radically horizontal)" 공간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박물관을 구성하는 33개의 갤러리 중 거의 모두가 한 층에 몰려 있어 통상적인 미술관의 건축 방식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 예술과 커피 Shophouse

타이항에는 높이가 낮고 엘리베이터 시설이 없는 *통라우*가 많습니다. 코츠웨이 베이 뒤편에 숨어 있는 조용한 주택가인 이 동네는 오후에 커피 한 잔, 아니면 초저녁에 가볍게 술 한 잔을 즐기러 나오는 이들에게 인기 많은 명소입니다. Shophouse는 이런 *통라우* 건물을 갤러리 겸 매장으로 개조해 이곳에 독특한 깊이를 더했습니다. 지난 2020년 5월에 문을 열었는데, 1인 및 단체 공연을 다양하게 돌아가며 무대에 올리며 미술, 패션, 디자인과 수집품 전시 등 각종 장르를 섭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창업자인 Alex Chan 씨는 어린 시절 벼룩시장에 이리저리 끌려다닌 경험이 있었는데 그러다 마치 주문에 걸린 듯 골동품의 매력에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진행한 전시회 중에는 빈티지 타이프라이터 전시회, 1980년대 Apple 유니폼 전시회 등이 있었습니다. 어떤 주제의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든, 홍콩의 전전(戰前) 시대 건축물을 볼 수 있다는 흔치 않은 기회만으로도 세컨드 레인(Second Lane)에 들러볼 만한 가치는 충분하다고도 남습니다. 원래의 특징을 충실히 살려 복원한 데다 바닥재를 테라조 소재로 마감해 그 자체로 예술 작품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완차이에 있는 Monocle 행정관리국 겸 사무실이 2020년인 올해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십년간 우리가 함께 기념하고 기록한 홍콩의 다양한 면모 중 10가지만 엄선해보았습니다.

# 2018

**하늘만큼 높이, 안전제일주의**  
 홍콩에서는 혼자 지하철로 통학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 사실만으로 시내 안전이 얼마나 튼튼한지 알 수 있죠. 또 한 가지 안전의 상징은 산에서 부상을 입은 등산객을 구조해주는 홍콩정부비행단(Government Flying Service, GFS)(113호 참조) 헬리콥터 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 2010

**공동체 의식의 성장**  
 37호에서는 성완 주민들을 만나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전히 다채로운 개성이 빛나는 곳이며, 인근의 사이잉푼이나 케네디 타운에도 이 동네의 영향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 2014

**공예와 문화를 토대로**  
 모든 고층 건물 시공은 비계 전문가팀에서 대나무 한 가닥을 또 다른 한 가닥과 엮어 만드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76호에서는 이 분야의 장인과 수습생을 특집으로 다루었습니다.

# 2011

**은 사방이 미술 작품으로 가득**  
 아트 바젤 인 홍콩(Art Basel Hong Kong)이 2013년부터 개최되었습니다. 세계 각지의 수집가와 미술상이 모이는 큰 행사입니다. 44호에서는 아트 바젤의 창립자 Magnus Renfrew와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 2015

**음식의 힘으로 나아가는 도시**  
 홍콩에서 점심시간은 존중받는 시간이며, 센트럴 지역으로 점심을 먹으러 나가는 것은 이 도시의 당연한 생활 방식입니다. 광둥요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Ho Lee Fook 씨(82호 참조)를 만나보았습니다.

# 2012

**귀중한 유산이 머물 집 마련해주기**  
 이전에는 타이오 경찰서로 쓰였던 건물을 호텔로 개조하는 작업은 이번 세기 홍콩에서 진행한 복원 프로젝트(점점 늘어나고 있는) 중 하나였습니다. 56호에서 이 프로젝트를 다루었습니다.



# 2019

**재치 넘치는 아이디어의 천국**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초등학교 건축가들이(121호 참조) 교실을 운동장과 주차장으로 개조했습니다.



# 2016

**층층이 모두 효과가 확실한**  
 타이항(93호 참조)은 기업 사옥이 늘어난 코즈웨이 베이 옆에 위치한 작은 마을입니다. 높이가 낮은 **통라우** 건물에는 창작자들이 매력을 느끼고, 가족 단위 가구는 신계 지역(New Territories)의 주택을 선호하죠.

# 2013

**가족이라는 큰 사업**  
 가족 기업에도 신세대가 선보이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64호에서는 New World Development에 CEO로 취임한 Adrian Cheng 대표를 그러한 시류의 좋은 예로 만나보았습니다.

# 2017

**쾌활한 연말연시**  
 109호에서 다루었던 항구 앞 고층 건물에서는 연말이면 크리스마스 조명을 장식하여 음력 설까지 계속 그대로 둡니다.

# 2020

**시선 집중**  
 132호에서는 상업 지구로 밀려거리며 통과하는 백 년 된 트램만큼 홍콩의 정수를 대표하는 광고 소재도 없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